

# 북부산림청 편치볼둘레길 운영 발전 협의회 하반기 정기 회의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민 관 군 협력

서동일 기자 원주

북부지방산림청은 일국립 자생식물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편치볼둘레길 운영 발전협의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편치볼둘레길 운영 발전 협의회는 지난년부터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구성원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군부대 육군 보병사단 사단 양구군 관련단체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사 디엠지편치볼둘레길 지역주민 해안면 주민자치위원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연합회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년부터 편치볼둘레길 상반기 운영 관리 위탁 성과 보고 및 편치볼둘레길을 연계한 지방정원 조성 시티투어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월 상반기 협의회에서 숲길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민 관 군이 협력해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이 함께 편치볼둘레길 만대별판길 코스 주변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편지볼돌레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로 국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숲길을 누리면서 신체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바가 커 2021년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국민의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군·군이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